

National Life and Reading Power in Korea

# 讀書力과 國民生活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차 례

- 一. 序 言
- 二. 讀書는 生活化되어야 한다.
- 三. 어린이들의 讀書習慣形成
- 四. 讀書力狀況
- 五. 讀書 매너
- 六. 速讀法
- 七. 讀書教育
- 八. 言語別 讀書過程의 性格

一. 序 言

讀書問題가 언제부터 學論되어 왔는지 確實치 않으나 오늘 날의 現代人에게 있어서 讀書를 전적으로 外面하고 生活할 수는 없다.

흔히 相對方의 趣味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이렇다 할 特技나 趣味가 없으면 自己의 無趣味를 讀書라는 美名으로 糊塗하여 버리고 만다.

勿論 讀書를 趣味로 볼 수 없다고 할 理由는 分明치 않으나 讀書에 對한 數 많은 名句를 다 들 것도 없이 讀書가 마음의 食糧이라는 단 한 句節만을 吟味하더라도 讀書가 단순히 취미의 領域을 벗어난 것만은 確實하다.

우리 人間이 삶을 위하여서 하루세기의 食事を 하지 않는 경우란 심한 질병이나 그 밖에 本人의 意思와 전혀 關係없이 不可抗力의인 事態에 直面했을 경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生理的인 慾求로 讀書는 精神的인 또는 理性的인 慾求이다. 肉身의 糧食인 음식물은 한끼를 걸러도 견디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지만 마음의 糧食은 수십끼를 걸러도 그 即時는 別 表示가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독서가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갈구하듯 하는 現象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人間이 精神的인 面과 肉體的인 面의 兩面性中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缺如된 때에는 正常的인 生活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兩面性은 어느 누구에게나 眞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肉體的인 糧食을 爲하여서는 自己의 適性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 代價로서 有形的인 肉體의 生命을 維持하여 나가는 職業的인 存在物이 되고, 나아가서는 삶을 참되게 영위하기 爲하여서 이른바 精神的인 糧食이 갈구되는 것이다. 이 無形的인 精神的인 糧食이 人間을 宇宙의 主人公으로 群臨하게 되었고 文化와 科學의 支柱로 誕生케 하였다.

人間活動의 歸着點은 生活의 調和를 이룩하여 나가는데 있어 일하고 배우며 배우면서 일을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面에 치우쳐 일만 하고 배우지 않는 다든가 반대로 배우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삶은 調和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으로 볼 때 참된 삶이란 生活속에서 調和의 極致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향시 넉넉한 食糧으로 肉身을 살찌운 비대한 몸을 지탱하더라도 정신적인 食糧이 없다고 할 때는 뿌리없는 巨木과 같이 그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며 反面 아무런 精神的인 糧食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肉身을 이어갈만한 양식이 없을 때는 그 훌륭한 정신적인 糧食도 必要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兩面性은 오늘 날과 같이 生活의 多樣化로 먹고 산다는 단순한 生計維持 一邊度로 나아가 精神的인 糧食을 求하는 讀書는 必要이상의 많은 노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精神的인 糧食을 얻기 爲한 讀書가 바로 生計와 直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讀書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普遍的인 面에서 볼 때 人間의 生活은 讀書와 분리될 수 없는 宿命的인 存在가 아닐까. 우리 人間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일에는 성취욕이 強하나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우면 싫증을 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人間本性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樣相은 讀書라고 하는 面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sup>1)</sup>

어려서부터 習慣化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일과중에서 책을 읽는 時間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못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서 책을 소의한다면 아무리 映像媒介體로 安易하게 독서를 통해 얻는 知識이

나 교양으로 대체하고자 하여도 책을 소외하면 할수록 자기 生活에서 調和性을 喪失하게 되고 內面世界的 擴大는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內面世界的 非擴大는 外面世界的 擴大를 期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調和와 均衡있는 發展은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讀書라고 하는 處方藥이 絶對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處方과 藥을 전혀 生造하게 여겨 치료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나 處方과 藥을 使用 乃至 勸獎의 度가 微微하여 우리의 生活속에 讀書가 日常的인 食卓에서 往往히 빠져 버려도 그 免疫力은 깊어만 가는 傾向이 깊어짐에 宜當, 食卓에 올라야 할 讀書의 營養素를 國民누구나 가 빠뜨림없이 섭취해야 健全한 民主市民으로서의 素養을 갖추고 國家發展과 人類文化發展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讀書를 통한 精神的인 營養分을 어떻게 섭취하여야 할까 하는 問題에 接하게 된다. 讀書를 通하여 우리는 지나간 歷史上的 偉大한 人物들을 만나게 된다. 人間이 生活을 영위하여 나가는데 있어서는 人間相互間의 깊은 만남이 자연히 필요하게 된다.

卓越한 先賢들과의 해후는 絶對的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만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眼目을 넓혀주고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讀書는 人生的 만남이요 思想과의 만남이요 文化學問的 發芽요 發展의 動力이며 科學的 叡知者인 것이다.

이러한 讀書만이 우리의 정신적 宇宙를 擴大시켜 나갈 수 있으며 個個人의 人格的인 世界를 깊게 할 수 있다. 現實의 世界에서는 時間的으로 이미 흘러간 훌륭한 人物들을 接하여 對話를 나누는 것은 不可能하며 現實的으로 實在하는 훌륭한 人物들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意見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讀書를 통한 만남이 唯一한 方法인 것이다.

讀書를 通하여 東西古今의 탁월한 人物과 지식인들을 만나 이들로 부터 가르침을 받아 나의 精神世界를 살찌우고 當面한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고 未來에 대처하여 나가는데 眞正한 讀書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 二. 讀書는 生活化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인구밀도는 이제 세계에서 그 順位가 上位級에 屬하게 되었고 特別히 大都市의 人口集中은 심각한 問題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中에서도 서울의 人口問題는 政治 文化 社會 經

濟 國防에 걸친 多面化한 問題를 제기하여 주고 있는 現實이다. 이렇듯 서울권을 中心으로 人口의 集中化는 여러 角度로 그 原因이 分析될 수 있으나 우리 國民들의 教育熱에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思考方式을 굳이 들출 것도 없이 우리 나라 國民大部分이 子女들의 教育을 구실로 내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리 國民은 有史以來 그 어느때 보다는 教育熱은 至高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教育열에 比하여 果然 讀書熱은 어떠한가 생각할 때, 國民의 독서에 대하여는 別다른 誠意나 熱誠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子女들의 學科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를 中心한 教科課程에서 點數를 높이기 爲한 노력이 위주인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學習의 效果는 80%~90%가 讀書를 通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定說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 자체에는 別다른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날 教育에 관심이 있거나 廣義의 教育분야에 從事하는 人事들로서 독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學父母들의 讀書 관심 내지 子女들의 독서습관 形成이나 讀書指導에서는 거의 關心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흔히 학교에 다녀온 子女들에게 대해 “이야야, 공부 좀 해라” “책 좀 보아라”하고 학교공부의 계속을 強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子女들은 시키지 않는 만화읽기에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까지 탐독을 하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어쨌서 만화類는 탐독하면서 독서는 하지 않을까 만화만이 재미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책은 재미가 없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어려서 부터 부모들의 적극적인 독서습관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 날 어린이들의 만화탐독으로 만화발행은 1日平均 20種으로 그 발행 부수만도 1,500乃至 1,800권에 달한다고 하며 種類만도 年間 70,000種에 달하는데 우리 나라 一般 도서의 刊行種類가 年間 7,000~7,500이라고 할 때 그 비율은 10배에 달하는 것이다.<sup>3)</sup>

1) 최민홍, 인생과 독서. 서울시립중로도서관보, 제3호, 1971. p. 34~35.

2) 김병일, 학습독서와 독서학습, 학교학습, 韓國行動科學研究所, 學習開發部. 제2권제3호, 통권7호, 1975.

3) 한국만화가협회의 주제임.

우리는 만화를 떠난 어린이들의 독서의 生活化 내지 讀書習慣 形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三. 어린이들의 讀書習慣形成

장차 이 나라의 主人公이 될 어린이들의 讀書습관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課題는 世界 어느 나라에서나 初等教育에 主要한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學課工夫를 통한 讀書나 學習에는 쉽게 실증을 느끼고 반대로 만화를 보는 열의는 감탄할 정도이다.

교과서가 만화라면 學校工夫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지 못할 어린이는 없을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들의 독서흥미를 올바르게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독서 흥미를 어떻게 키워나가 건전한 社會人으로서 讀書를 生活化할 수 있게 할까하는 問題를 살펴 보자. 讀書問題를 最初로 學問의인 體系下에서 研究하게 된 것은 독일의 Leipzig大學이 1880년에 실험心理學 研究所를 開設하여 心理學의 側面에서 研究한 것으로 비롯 된다.<sup>4)</sup>

讀書心理에 關한 研究는 讀書의 生理, 心理的인 要因에 關한 研究期를 거쳐 paper test를 통한 독서연구期, 독서의 體系의인 研究期의 3段階를 거쳐 發展되어 오다가 세계 第 2次大戰後로부터 最近에까지는 前記한 3段階를 綜合한 研究가 試圖되고 있다.<sup>5)</sup>

이 研究의 主流는 어린이들의 成長에 따르는 變化에 기초를 두고 研究가 推進되며 어린이들의 독서지도 방향은 아동의 연령계층에 따라 독서능력의 발달단계를 研究하는 점과 어린이들 스스로의 要求에 따른 讀書흥미를 연구하는 點으로 區分하게 된다.

아동들의 讀書指導를 독서심리面에서 연령별로 독서의 단계를 5段階로 區分한 Jean Poindexter Colby는 그 區分을,

- ① 유아기(baby age 1살~2살)
- ② 책에 대한 최초의 관심기(the first read book age 3살~5살)
- ③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시기(the beginning to read themselves group 6살~8살)
- ④ 讀書를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시기 (the major reading age 9살~12살까지)
- ⑤ 熟讀期(older children 13살 이상)이다.

이 밖에 May Hill Arbuthnot는 독서 흥미 유발에 따른 心理區分을 7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심리(the need to love and to be loved) 이 요구는 衣食住에

버금가는 주요한 것으로 부모형제 자매의 따뜻한 가정 내에서의 成長된 人格體로 幸福한 분위기의 가정환경이 바로 독서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독서분위기의 조성은 그 기초가 가정단위이며 여기에서 그들은 가정단위의 구성원으로서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이웃들과의 생활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애완동물들을 통하여 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도서를 읽도록 해주어 어린이들의 애정감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所屬員이 되고자 하는 要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단체활동의 一員으로 生活할 수 있는 學校生活과의 關係를 主題로 한 讀書를 하도록 권장한다.

셋째, 成就慾(the need to archive)을 達成시키기 위하여 自立과 結實을 바라는 마음으로 목적한 바를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가는 傳記, 모험담, 發見, 發明 이야기 등을 읽게 한다.

넷째, 지식욕(the need to know)으로 先天的인 배움의 요구를 助長해 새로운 정보를 담은 내용의 도서를 읽게 한다.

다섯째, 새로운 상태의 요구(the need for change)로서 단조로움에 권태를 쉽게 느끼고 變化를 요구하며 새로운 상황에 關心과 要求에 對應시켜주는 內容으로 空想的인 것, 우스운 이야기, 모험, 미스터리를 主題로 한 것을 읽도록 한다.

여섯째, 美的 要求에 對한 갈구(Aesthetic satisfaction)로 아름다운 것에 對한 要求를 바라며 審美感을 이룩에 키워 주어야 한다.

그림책 아름다운 음악 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美術品에 있어서 조잡한 作品이나 色彩를 避하고 우수한 색채와 인쇄物을 보여 주고 助言을 하여 주어야 한다.

일곱째, 安定性的의 希求(the need for security)人間은 本能的으로 위험이나 不安의 要因에서 벗어나 安全한 것을 바란다. 特히 自然으로 부터의 保護는 어린이나 아이들에게도 큰 위험으로 安全感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요정이야기, 幻想的인 이야기, 實存의 英雄들에 관한 傳記 등을 읽도록 권장해야 한다.<sup>6)</sup>

阪本 一郎氏는 讀書心理學의 發達에서 讀書能力의 發達段階를 讀書入門期(5歲에서 就學期까지), 初歩讀書期(國民學校 1學年에서 3學年까지), 展開讀書期(3學年에서 中學校 2學年까지), 성취독서기(中學校 2學年부터

4) 阪本 一郎, “讀書心理學의 發達” 讀書指導心理と生理. 東京, 牧書店, 1955. p.56.

5) Ibid. p.57.

6) 丁海星, 兒童의 讀書能力 發達에 對하여, 圖書館學會誌. 충의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회, 제2호, 1975. 3. p.17.

高等學校 이후까지)로 보았고 讀書興味發達은 寓話期(6歲~8歲), 童話期(8歲~10歲), 小說期(10歲~12歲), 傳記期(12歲~15歲) 文學期(15歲~) 思索期(17歲~)로 나누었다.<sup>7)</sup>

이밖에 韓國學校圖書館叢書編纂會에서는 讀書興味傾向時期를 圖書內容區分으로 옛이야기期, 遇話 逸話는 4歲에서 8歲까지, 동화 전설 架空科學은 8歲에서 9歲까지, 小說期 少年 少女 모험이야기 傳記 歷史 地理 科學小說 等 10歲에서 13歲까지 文學期는 少年文學 少女小說 傳記 推理小說 風俗 純文學 歷史地理圖書 自然科學 人文科學書籍 等으로 보았다.<sup>8)</sup>

이에 對하여 研究의 統一的인 段階와 時機에 區分이 없고 다만 共通點은 個性, 特性, 能力, 年齡과 함께 變化하여 가는 單란한 人格形成에 따르는 讀書指導가 뒤 따라야 한다.

自然的인 讀書習慣 形成은 極히 어려우며 반드시 4歲를 中心한 어머니의 讀書案內, 가족들의 讀書分圍氣 造成이 어린이들의 身體, 發達過程에 따른 어린이들의 요구를 把握 適期에 應할 수 있도록 讀書能力을 감안, 個人的 知能發達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 心理的 特性에 敏感한 安定된 독서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취학을 계기로 커다란 生活環境에 變化를 가져 오므로 無理없는 保護와 安定된 환경에서 독서습관형성을 어른들의 縮小版이라는 타입에 固定시키지 말고 心理的 變化에 따른 꾸준한 指導가 뒤 따라야만 독서습관이 형성된다.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친근감을 갖게 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社會가 要求하는 眞正한 民主市民이 될 수 있도록 讀書의 生活습관형성은 우리를 既成人의 主要한 當面課題인 것으로 우리들 모두가 各자의 가정으로 부터 어린이의 독서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일대 각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 四. 讀書力狀況

讀書는 文字의 誕生과 더불어 共存하여 온 悠久한 歷史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까지 讀書가 무엇이냐하는 問題에 對해 統一된 定說이 없다. 言語學者들의 여러 見解를 이 자리에서 記述할 必要는 없으나 讀書란 廣義로 말해 쓰여진 기호나 印刷된 Symbol을 正確히 해석하여 나가는 것이 讀書라 하였다.<sup>9)</sup>

文字記錄物의 蓄積은 歲月의 흐름과 더불어 活用的 價値를 發揮하는데는 讀書行爲로 나타나게 된다.

인쇄문명의 획기적인 發達은 市民思想의 고취로 科學革命을 불러 일으켰고 세계人類의 平和指向的인 民主思想은 國民個人的인 人格함양을 요구하게 되었고 無

限量的 出版物은 教育을 통한 人間發達 以上으로 讀書를 통한 民主市民의 自質向上과 個人的인 內面生活에 필수적인 양식으로 讀書를 要求하게 되었다. 오늘 날 독서문제는 學校教育以上으로 世界各國은 讀書問題에 對한 關心과 독서력의 向上을 도모하고자 多樣的인 活動을 展開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 讀書活動의 狀況은 나라마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독서실태조사가 뚜렷이 제기된 바가 없어 各國의 讀書狀況을 統計上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讀書量에 關한 基準值의 典據가 그 나라의 出版量에 依存하여 抽出하여 나가는 程度이니 極히 不適切한 方便인 것이다.

한 나라의 出版量이 반드시 自國의 國民만을 對象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國際語로 通하는 英語로 된 出版物은 自國의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數보다는 오히려 世界市民을 對象으로 할 程度이며 영어 다음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불어, 서반아어, 독일어, 日本語 등의 出版物도 自國의 需要만을 爲한 發行高가 아님을 감안 할 때 결코 出版量의 페이지數로 抽出한 독서량은 신빙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경우 良書라고 出刊한 책이 普及되지 않아 倉庫에나 쌓여 있다가 기증이나 捐贈을 하여 읽히는 책이 아니라 서가의 장식용으로 나타날 때 出版量에 의한 量的測定方法에 따른 독서량은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讀書人口 亦是 學校教育을 마치고 文盲水準을 벗어 나 文字를 解得하는 人을 讀書人口로 看做할 것이냐 그리고 文字를 解得하는 水準에 있다고 하더라도 1年內 冊한권 읽지 않는 人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讀書人口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 또한 讀書量이라고 하는 問題와 같이 一律的으로 定義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흔히들 취학인구數와 讀書人口를 同一視하려 하나 결코 國民의 教育熱과 독서열이 正比例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論理인 것이다.<sup>10)</sup>

이제 참고로 기준상태가 모호한 자료이지만 世界各國의 讀書실태와 우리 나라에서의 독서력 상황을 살펴 보자.<sup>11)</sup>

7) Ibid. p.19.

8) 학교도서관총서편찬위원회, 독서지도와 도서관이용지도. 現代教育出版社. p.195.

9) 岡田明, 最新讀書의 心理学, 日本文化科學社. 1973. p.1.

10) 梁泰鎭, 讀書와 環境, 도립월보, 1974. 9月號 p.3.

11) Ibid. p.4.

| 구분<br>나라별  | 讀書人口率   | 讀書量  | 중당발행부수  | 1976년도에 성인이<br>중소책자 1권이<br>라도 읽은 사람 | 테레비P. R로<br>인한 도서<br>발행량 증가 | 국민 1인당도<br>서 발행부수 | 연간도서구입비 |        |
|------------|---------|--|---------|-------------------------------------|-----------------------------|-------------------|---------|--------|
| 미국(成人中)    | 17%     | 80~100page<br>(1인당1일平均)<br><br>3,000page<br>(年間) | 13,900부 | 100人中40名                            | 5년간에 30%                    | 20권               | 4,320   |        |
| 스페인        |         |  |         | " 63名                               | 10년간에 50%                   | 6권                |         |        |
| 英國(全國民)    | 55%     |  |         |                                     | " 52名                       | 연간에 17.5%         | 10권     |        |
| 캐나다(全國民)   | 31%     |  |         |                                     | " 24名                       |                   |         |        |
| 서독(全國民)    | 55%     |  |         | 7,700부                              | " 56名                       |                   |         |        |
| 호주(全國民)    | 33%     |  |         |                                     | " 28名                       |                   |         |        |
| 이베리(全國民)   |         |  |         |                                     | " 66名                       | 연간 7%             |         |        |
| 일본(全國民)    | 30%~44% |  |         | 9,700부                              |                             |                   | 4권      | 1,730원 |
| 불란서(全國民)   | 28%     |  |         |                                     |                             |                   |         |        |
| 포르투갈(全國民)  |         |  |         |                                     |                             |                   |         |        |
| 스칸디나비아(//) | 30%~40% |  |         |                                     |                             |                   |         |        |
| 오란 다(全國民)  |         |  |         |                                     |                             |                   |         |        |
| 한국(全國民)    | 10%     | 60page(1인당)                                      |         |                                     |                             | 0.2권              | 100여원   |        |
| 스웨덴(全國民)   |         |  |         |                                     | 15년간에 300%                  |                   |         |        |

우리 나라의 讀書상항 數值<sup>12)</sup>

새러리맨의 독서관황  
귀가후 시간활용

|        |     |    |
|--------|-----|----|
| 테레비 시청 | 34% | 1位 |
| 신문     | 13% | 4位 |
| 독서     | 9%  | 5位 |

|      |        |     |          |
|------|--------|-----|----------|
| 中學校  | 1년     | 1인당 | 1,364페이지 |
| 中學校  | 2년     | 1인당 | 1,588페이지 |
| 中學校  | 3년     | 1인당 | 958페이지   |
| 高等學校 | 1년     | 1인당 | 1,610페이지 |
| 高等學校 | 2년     | 1인당 | 1,398페이지 |
| 高等學校 | 3년     | 1인당 | 1,076페이지 |
| 大學生  | (출입통계) | 1인당 | 1,390페이지 |
| 成人   |        | 1인당 | 38페이지    |

한국지식층의 독서경향<sup>13)</sup>

조사자: 서울女大 全海星  
기간: 74.7~8월  
대상: 일반(男, 女) 大學生(男, 女)  
발표지: 中央日報(74.9.30)

| 구분<br>층별 | 기간  | 독서량  | 장서량           | 비고 |
|----------|-----|------|---------------|----|
| 일반(남)    | 1개월 | 2.6권 | 50권이 42.6%    |    |
| 일반(여)    | 1개월 | 2.1권 | 100권이상이 25.8% |    |
| 男大       | 1개월 | 2.2권 | 100권미만 68%    |    |
| 女大       | 1개월 | 1.8권 | 500권이상 4.1%   |    |

74년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조사한 독서량<sup>14)</sup>

|                       |       |
|-----------------------|-------|
| 연간 독서량: 5~10권         |       |
| 1일독서시간: 1시간~2시간       |       |
| 1년동안에 5권까지의 도서를 읽는 비율 |       |
| 10代                   | 16.9% |
| 20代                   | 14.6% |
| 30代                   | 59.8% |
| 40代                   | 32.3% |

한국학생 연간 독서량<sup>15)</sup>

조사기관: 자유교양협회  
발표지: 경향신문(73.9.13)

|     |    |     |          |
|-----|----|-----|----------|
| 국민교 | 3년 | 1인당 | 1,022페이지 |
| 국민교 | 4년 | 1인당 | 996페이지   |
| 국민교 | 5년 | 1인당 | 1,088페이지 |
| 국민교 | 6년 | 1인당 | 1,044페이지 |

五. 讀書 매너

現代人에게 있어서 讀書의 重要度나 必須性은 이제 論及할 必要가 없을 줄 안다. 讀書에 있어서 그 태도나 方法에 있어서는 古今을 通하여 各己 個性에 따라 적절한 方法으로 讀書을 해 왔다. 이러한 方法은 오늘 날에 와서도 傳來되어 답습되고 있으나 나날이 急增하는 지식량을 흡수하기 爲하여서는 보다 科學的인 讀書 方法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教養을 위주로한 讀書이든, 讀書을 生活上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는 學校教育을 비롯하여 讀書方法의 개선이 時急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그러기에 Hunt는 일찌기 科學의 진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날로 복잡성이 증가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이래 없었던 독서에 있어서의 우위성을 갖도록 現代人들은 強要당하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見地로 볼 때 萬人讀書요 萬事讀書의 時代가 現代가 아닌가도 여겨진다. 더우기 學習活動에 있어서

12) 梁泰鎮, 讀書와 環境, 도협월보 1974, 9月號 p.3.  
13) 중앙일보, 한국지식층의 독서경향, 1974, 7월 8일字.  
14)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국도서전시회의 설문지 분석결과.  
15) 경향신문 한국학생 연간독서량, (자유교양협회조사) 1973년 9월 13일.

80~90%가 읽기를 통하여 모든 課題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독서의 효율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讀書를 떠난 現代人의 生活은 存在하기 어려울 程度이며 無限히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知識의 量을 취사선택하여 가장 적은 時間을 들여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問題解決에 도움을 갖도록 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인 것이다.

그러하여 讀書에 있어서 自然히 速讀問題가 提起되는데 여기에 隨伴하여 速讀訓練에 主眼點을 두게 되었다.

### 六. 速讀法

速讀의 目標은 正確한 理解와 讀書時間의 단축에 있다.

眼光紙背儼이니 讀書百遍通이니 하여 精讀내지 反復의 讀書에도 一理는 없지 않으나 多樣하고 複雜한 오늘의 現代人에게 날로 팽창하는 知識量을 消化하는데는 古典的인 敎訓에만 사로 잡힐 수는 없다.

이러한 理由로 先進諸國에서는 速讀에 對한 研究가 活發히 進行되고 있는데 特別히 大學에서는 讀書改善에 따른 講義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 實例로 美國 캘리포니아 讀書財團에서는 速讀法(Rapid Reading System)이라는 새로운 독서법을 開發 보급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체로 글의 意味가 글자속에 있지않고 읽는 이의 머리속에 있다면 독서력은 머리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며 이는 段鍊如何에 따라 또는 個人差에 따라 程度의 差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소위 平面讀書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에서도 個人差는 크게 나타나며 立體讀書인 積極의 思考를 要하는 讀書에서도 個人差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讀書力은 讀書教育方法에 따라 自己能力의 몇 십배를 向上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를 둔 독서교육은 初步段階의 글 읽기와 技能讀書를 技術讀書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高等教育으로 區分되며 또한 學校內의 독서교육과 校外의 독서교육으로 다시 區分된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매우 높아 그 교육 수준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으며 문맹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우리국민의 民度는 그다지 높지 못함도 잘 알고 있다.<sup>16)</sup>

最近의 유네스코發表에 依하면 學令期의 世界人口 가운데서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에서 現在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자수는 50%정도이고 成人 文盲者는 40%나 된다.<sup>17)</sup>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취학아

동 연령층 95%이상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생중 72% 이상이 中學에 進學하였고 中學卒業生中 70%정도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미취학의 5%인구도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아서라도 우리의 글은 대체로 습득하게 되어 문맹율은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文字의 解讀단계만 벗어 난다면 個個人의 讀書力은 無限히 啓發될 수 있으며 독서력의 개발은 個個人의 두뇌개발을 의미한다. 독서를 통한 두뇌개발의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기능독서와 기술독서가 불가능한 狀態에 沒入된다. 다시 말해 독서를 통한 두뇌개발이 되지 못하면 단지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독서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입속발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줄 모르고 독해 속도가 낭독속도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의 독서력은 사실상의 독서력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능력의 개발여지는 일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력, 현재의 지식정도만으로는 장차 어느정도 그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고 個個人의 讀書를 통한 두뇌개발 如何에 따라서 그 程度가 決定되어 지는 것이다. 이른바 技能讀書라고 하는 것도 非效果의인 讀書活動의 校證과 效果의인 目讀訓練를 통한 독서를 迅速하고 正確한 의사소통의 하나로서 日常生活에 活用하는 단계를 말한다.

反面 기술독서라고 함도 능동적으로 思考하는 독서로 解讀效果를 極大化시키고 독서目的과 독서資料에 따라 독서방법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단계인 것이다. 기술독서수준에 달하는 이는 과거의 전공 종류나 쌓아온 학식 경험 등에 거의 구애받음이 없이 어떠한 업무나 問題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사태에 신속히 대비하여 부닥친 업무를 해결할 줄 아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讀書力 向上을 통한 개인의 두뇌개발은 그 所屬의 集團이나 國家에 신속하고 幅넓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해준다.

주어진 問題의 解決과 業務進尺을 앞당겨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독서를 통한 두뇌개발에서 가능하고 높은 독서력으로 생산적인 독서를 꾸준히 계속할 때 이러한 類의 個人이 屬해 있는 集團과 社會는 發展途上國家가 격어야 하는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고 발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침체와 후진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속독훈련에 따른 몇가지 기술방법을 살펴 보자.

속독훈련에는 Skimming이라는 것이 있다. 이 방법

16) 金炳元. 精速法力開發의 意義와 原理, 행동과학, 제9권 제2호, 1975년 5월 p.5~6.

17) Ibid. p.5.

은 제비가 水面을 가볍게 살짝 스쳐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읽는 방법이라 하여서 命名한 것으로 책을 읽을 때 페이지의 여기 저기에 눈을 멈추어 大意를 파악하는 극히 빠른 讀法이다.

即, 關係있는 重要文章 부분을 훑어 돌아 기억하고 順次的으로 綜合하여 정리하는 方法으로 一種의 概括作用이다. 이 Skimming의 效果를 研究한 맥크라스키는 책을 읽기 전에 25초간의 책 읽는 훈련을 시켰다 한다. 이 方法은 첫번째 節(paragraph)을 Skimming 하고 난 후 페이지를 훑어 읽는다.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25초 동안에 할 수 있는 Skimming 分量을 알게 되며 어떤 책이든 25秒동안의 Skimming 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훈련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였더니 독서의 正確度는 同一하나 速度面에서는 24%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빨랐다고 報告하였다. 이 Skimming 독서훈련은 독자의 독서방향, 앞으로 전개될 줄거리의 예견, 內容의 理解에 많은 도움을 주는 方法이다.

둘째로, 平面讀書法이 있다. 여기서는 判讀速度의 開發로 노동자를 바로 움직이고 內的 音聲化의 역제, 正心력의 集中, 똑바른 자세와 行動에 따른 훈련으로 가장 기초적인 독서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밖에 CLOZE 훈련이라고 하여 최근에 와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세계의 各種 言語中에서도 한글에 적용하기가 가장 적합한 CLOZE 훈련법을 써서 把持(把持), 豫見, 行動을 開發한다. 이 CLOZE 훈련은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단어, 어귀, 文章에 적용한다. 생각, 읽기, 글의 表現구조와 집중구조의 이해를 통해 글자읽기가 아닌 內容읽기를 시도한다. 동시에 문장내용의 전개법과 생각하는 모형을 재인식시켜 把持, 豫見, 行動의 효율을 높인다.

훈련 글 내용의 종류와 생각의 흐름을 익혀서 구조 읽기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입체독서, 구조독서, 정속독력의 根幹이 되는 독서방법을 융통성있게 조절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읽은 글 내용의 효과적인 암기법과 종합한 것을 要約하는 방법을 파지, 예견, 행동강화에 연결시켜 훈련한다.

개념개발, 내용의 一般化, 해석, 再創造 活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결론과 추론을 重點的으로 강화한다. 비평과 창의적 독서, 필자의 의도와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 分析, 綜合, 行動의 강화와 감상을 爲한 자기노출을 시도하게 한다.

이상의 全過程에서 QAXT(Question Answer & Explanation-Training)를 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독서활동을 진단하는 질문지를 배부하여 거기에 응답하

게 한다.<sup>18)</sup>

그 다음 그 결과에 근거를 두고 도서관과 독서실리의 原理說明을 통해 정신적 태도의 교정과 훈련자세를 갖추게 한 후 미리 마련한 정속독훈련자료를 활용하여 각단계별로 파지, 예견, 행동의 개발을 시도한다.

## 七. 讀書教育

개개인의 독서력을 준문맹 수준에서 기능독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고 나아가서 기술독서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글자만 읊독할 수 있으면 독서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독서력은 국민학교 2, 3학년 정도의 준문맹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게 된다. 독서의 속도를 점차 빠르게 해주고 각종 독해기술의 향상으로 기능독서력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독서태도를 갖게하고 의미를 해석할 줄 알고 감상, 비판할 줄 알며 창의적인 독서를 시도할 줄 알도록 단계적인 독서교육을 강화하면 기술독서력은 강화 될 것이다.

이 독서교육은 학습독서(Reading to Learn)의 가능성에서 본체적인 독서학습(Learning to Read)이 필요하게 된다.

학습독서를 爲한 독서교육은 우선 기초적인 독서행동의 교정도부터 실시한다. 독서의 效果를 독서면에서나 독해면에서나 극대화시키려면 노동자의 움직임과 判讀力의 強化, 視幅의 擴大等, 눈을 通한 뇌의 시각기능속달훈련이 있어야 하고 글자를 발음기호로 취급하는 式的 音識代身에 글자를 가볍게 보아 넘기면서 필자의 생각을 읽는 내용읽기 훈련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글의 짜임새를 內容보다 먼저 확인하는 독서훈련이 필요하다.

文章이나 語句는 그런대로 이해하여 글전체나 책전체의 內容을 놓고 보면 어느 부분이 中心이고 무엇이 어떤 형태로 거기에 중속되어 있는지 또는 학습자가 필요한 교육내용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내용들과 얽히면서 전개되어 있는지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독해수준이 지극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읽는 속도도 상당히 뒤떨어지게 된다. 읽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학습독서의 능률이 높아진다.

읽는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내용을 추상화 또는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념개발 모델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독서력과

18) 李榮碩·李恩珍. 독서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Research Note 한국행동과학연구소 Vol.4, No.5. 1975. 5月 p.38~39.

더불어 학습자체의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의문을 품고 비판하면서 읽는 독서태도는 학습의욕을 가속화시키며 이해의 선을 넘어서 암기 효과의 장기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흔히 독서를 수동적으로 생각하여 필자의 생각을 잘 따라만가면 그 목적이 끝나는 줄이나 실은 독서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학습도서의 효과를 극대화 해 줄 수 있는 독서교육은 능동적인 독서훈련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능동적인 독서는 의문을 품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면서 글을 읽는 독서인 것이다.

### 八. 言語別 讀書過程의 性格

各 言語의 讀書過程分析에서 그레이는 眼球運動을 들었다. 데이터는 4群으로 나누었다. 卽 ① 19세기말에 獨逸, 佛蘭西 등에서 行한 선구적연구 ② 1900년 이후 미국에서 行한 발전적 研究 ③ 1920년 이후 中國, 日本, 스페인 등에서 行한 類似한 研究 ④ Gray Project 에서 行한 14個國의 研究가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한글을 포함한 世界諸語를 代表할 수 있는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sup>19)</sup>

이같은 研究에 따르면 讀書行動에 圓熟한 독자들은

독서태도에 있어서 根本적으로 同一하다.

말하자면 眼球運動에 있어서 停留時間은 거의 없을 程度이며 이들의 認知力은 總體的이며 音讀은 默讀보다 速度가 늦고 音讀이 流啣하며 思考의인 태도를 잃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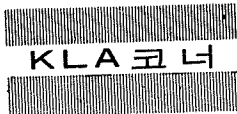
이러한 독자들은 言語構造에 관계없이 언제나 思考의인 態度를 전지하고 單語認識이 正確하며 認知의 幅도 넓다. 필요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逆行運動은 하지 않는다. 單語 하나 하나를 재치있게 하나의 思想系列속에 잘 융합시킨다. 言語區分에 따라 독서과정은 독서지도에 영향을 받으나, 其實 많은 共通點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러 事實로 견주어 보아 독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成果를 注意깊게 收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레이氏는 方言에 不過한 言語를 除外한 오늘 날에 뚜렷한 言語數로 約 2,800語로 보았다. 이中 代表的인 14個國語를 가려 音讀과 默讀에 관한 比較를 하였다.

19) 岡, 田明, 最新讀書의 心理學. 日本文化科學社. 1973. p.13~14.

### 「圖書館業務의 緩急」

大多數의 司書들이 느끼듯이 圖書館資料의 整理는 확실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매일 매일 各樣各色的 資料를 매만지며 分類될 主題를 着想하고, 分類表에 適用시키고, 資料의 書誌的, 形態의 特徵을 카아드에 組織化하느라하면 무척이나 많은 苦痛과 當惑을 느끼게 된다. 卽인가? 꼭 雜役夫같이 너저분한 裝備業務를 하고, 作成된 카아드를 정해진 位置에 배열하다 보면 과연 이러한 業務를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利用效果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면 때때로 疑問을 느끼게 된다. 收書에서부터 整理, 納庫, 排列까지의 一連作業을 수행하려면 보통 1일 1인당 7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습게 보이는 이 基準을 생각하고 整理業務를 감당하다 보면 정말 이 조그만 숫자가 결코 우습지 않게 된다.



보통 力學에서는 투입된 人員이 많으면 많을수록 發生하는 힘은 投入人員十알파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資料의 整理業務에 관한 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整理人員이 많으면 많을수록 個人當 整理能率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투입된 정리지원의 個人差에도 原因이 있을 것이나 아마도 能率의인 業務遂行을 妨害하는 가장 큰 要因은 lose time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縱의이던 橫의이던 間에 人間과 人間사이에서 생겨나는 各種의 커뮤니케이션이 業務能率의 진작에 逆反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철저한 業務分析의 未洽함과 適材適所에 배치하여야 하는 人事問題의 소홀함 같은 것들도 그 原因으로 指摘될 수 있겠다. 그러나 너무 能率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正確도가 問題가 되고, 그렇다고 正確도에 만집착하다 보면 能率上 問題가 된다. 아무래도 正確도와 能率은 尙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正確한 정리는 이용자가 보다 效果的으로 必要한 資料를 索出, 利用한다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능률을 무시하는 限 新着資料가 古書化하는 矛盾을 낳기도 한다.

「천천히, 빨리, 正確히」라는 文句는 矛盾되는 단어의 나열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圖書館資料의 整理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世上事에 中庸之道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다.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아가는 삶의 眞理를 터득한다는 것은 人間이라면 반드시 시도하여야 할 문제인데 요즘 세상은 둥근 것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 같다. 却說하고 여하튼 資料의 整理業務는 緩急을 적당히 배합하는 中庸之道를 걷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정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은 이점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런지..... (景)